

## LED 콘택트렌즈로 망막 병증 예방·조기 치료 기술 개발

👤 조석현기자 | ⌚ 승인 2022.02.23

포스텍 신소재공학과  
한세광 교수 연구팀



국내 연구진이 LED 콘택트렌즈로 망막 병증을 예방 및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.

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<사진> 교수, 통합과정 이건희, (주) 화이바이오메드 신상배 박사 연구팀은 스마트 콘택트렌즈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.

이 콘택트렌즈를 착용 후 120 마이크로와트( $\mu\text{W}$ , 100만분의 1 와트)의 빛을 무선구동을 통해 망막에 전달해 당뇨성 망막 병증을 예방하고 초기 단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.

한세광 교수는 "이번 연구성과는 광학 장치를 렌즈형 웨어러블 기기에 도입해 그 활용 분야를 넓힌 것으로, 산소포화도, 맥박, 안질환 등의 진단뿐만 아니라 우울증, 불면증 등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조석현기자